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 철자 오류

최 희 섭
(전주대)

1. 서론

우리나라의 관광지(유적지 포함: 이하 관광지로 통칭함)에는 많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로 관광지를 설명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일본어와 중국어가 병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한국어와 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어 안내판의 문구가 완성된 후에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임이 드러난다. 대부분 한국어 안내판 옆에 영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두 언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 안내판을 읽어보고 그 관광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영어 안내판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것이다. 물론 일본어나 중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일본어 사용자나 중국어 사용자는 그 언어로 되어 있는 안내판을 읽고 정

보를 파악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어나 중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안내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본고에서 분석하게 될 광한루원에¹⁾ 있는 8개의 안내판 중에서 4개의 안내판에는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지만, 나머지 4개의 안내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 안내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내판이 맡은 외교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체관광객의 경우에는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정보를 획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광객은 안내판에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영어 안내판의 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면에 대하여 성급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안내판의 제작에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광한루원에 있는 8개의 안내판 중에서 「완월정」, 「오작교」, 「월매집」, 「춘향사당」, 등 4개의 안내판에는 일본어 안내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 4개의 안내판과 「광한루」 및 「광한루원」의 안내판은 바탕색이 동일하고 「광한루·오작교」와 「승월교 무지개 분수」는 바탕색이 다르다. 이 안내판의 바탕색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여 조사해본 결과 「광한루」는 보물 281호로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광한루원」은 사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이지만, 나머지 6개는 도지정 문화재 목록에도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어 안내판이 병기되어 있는 4개의 안내판은 광한루원의 관리부서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내판과 같은 바탕색을 사용하여 설치하였고, 나머지 두 개는 또 다른 관리부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다른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거나 문화재의 안내판의 작성과 제작에는 책임 있는 담당자가 관여하였을 것이고, 관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점검한 결과 매우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삼은 8개의 안내판 중에서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안내판에 나타난 번역의 오류가 너무

1) 광한루원 일대에는 8개의 안내판이 있다. 본고에서 안내판 자체를 지칭하는 경우와 안내판의 내용을 지칭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하여 문장부호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는 안내판 자체를 가리킴, “ ”는 인용임을 나타냄, []는 발음을 가리킴. 문장부호가 없는 경우는 지역을 나타냄.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범위를 매우 좁혀 고유명사의 번역에 관하여만 살펴보도록 한다. 광한루원의 안내판 8개에 있는 고유명사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고찰할 수 있고, 고유명사의 번역에는 그다지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로 점검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 이러한 오류의 조사는 관광지 영어 안내판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본론

2.1. 광한루

「광한루」, 「광한루원」, 「완월정」, 「오작교」, 「월매집」, 「춘향사당」, 「광한루·오작교」 및 「승월교 무지개 분수」의 안내판에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고유명사가 사용되어 있다. 이 8개의 안내판에는 “광한루”라는 고유명사가 「광한루원」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여 7회 사용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한루」에 제목과 설명에 각각 한 번, 「광한루원」의 제목에 한 번, 「광한루·오작교」의 제목과 설명 중에 각각 한 번, 「월매집」의 설명 중에 한 번, 「완월정」의 설명 중에 한 번 사용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광한루” 표기

고유명사	장소	표기 1	표기 2	표기 3	비고
광한루	광한루	Gwanghanru Gwanghanru			진한 글씨는 제목입
	광한루원	Gwanghanru			"
	광한루·오작교		Gwanghallu Pavilion	“Gwanghallu”	인용부호 사용
	월매집		Gwanghallu Pavillion		
	완월정		Gwanghallu Pavilion		

다섯 개의 안내판에서 7회 사용되어 있는 “광한루”가 세 곳에는 “Gwanghanru”, 세 곳에는 “Gwanghallu Pavilion”, 한 곳에는 “Gwanghallu”라고 되어 있다. 「월매집」의 안내판에는 “정자”를 뜻하는 “pavilion”의 철자가 “pavillion”이라고 되어 있어 철자 자체가 틀리지만, 이것이 맞는 철자 “pavilion”이라고 보고 계산하여 7회 나오는 것으로 계산한다.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에는 한국어의 문자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과 발음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남원”, “서울”, “전주” 등과 같이 문자와 발음이 동일할 경우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종로”, “학여울”, “왕십리”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각각 [종노], [항녀울], [왕심니]로 되기 때문에 문자와 발음이 다르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단어에는 글자와 발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어 단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문자 정보를 로마자로 옮기는 것을 전자법이라고 하고, 발음 정보를 로마자로 옮기는 것을 표음법이라고 한다(남성우 198).

2000년 7월 19일에 공포한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 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1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ttp://. . /rule06.jsp²⁾)고 밝히고 있다. 이는 표음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외국인이 로마자를 읽고 한국어의 발음에 가장 가깝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은 철자법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이를 영어로 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광한루”의 경우에 전자법에 따라 적으면 “Gwanghanru”가 되지만, 표음법에 따르면 “Gwanghallu”라고 적는 것이 바른 표기법이다.³⁾ 또는 외국인이 그 발음만 가지고는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Gwanghallu Pavillion”이라고 적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삽입을 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이다.

명료화(explicitness) 또는 구체화(specification)의 방법인 “삽입”은 어휘나 문맥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가가 추가의 정보를 덧붙이는 방법이다. 삽입은 등가를 이루는 어휘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거나, 특정 어휘가 목표언어권의 독

2) http://www.korean.go.kr/06_new/rule/rule06.jsp을 줄여서 표기함.

3)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에 “광한루”는 “Gwanghallu”로 표기되어 있다(253).

자에게 매우 생소한 경우, 문맥상 원천텍스트의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함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원저자와 원천 문화권의 독자 간에 공유된 특정한 정보가 매우 커 생략이나 함축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남성우 132/ 이근희 2005 49). 이는 목표문화권의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므로 번역가는 생략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 삽입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삽입의 방법은 문장 내에 삽입하는 방법, 문장 내에 괄호로 처리하는 방법, 각주로 처리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첫째 방법을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2.2.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광한루원」, 「완월정」, 「승월교 무지개 분수」 등 세 곳에 표기되어 있는데 세 곳의 표기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서로 다르다.

<표 2> “광한루원” 표기

고유명사	장소	표기 1	표기 2	표기 3	비고
광한루원	광한루원	The Whole Area of Gwanghanru			진한 글씨는 제목임
	완월정		Gwanghalluwon Garden		
	승월교 무지개 분수			Gwanghallu-won Garden	

“광한루원”은 광한루가 있는 정원을 가리키므로 “Gwanghalluwon” 또는 “Gwanghalluwon Garden”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The Whole Area of Gwanghanru”는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광한루 전지역이라고 번역하였으므로 명백한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안내판의 제목에 “광한루원(廣寒樓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苑)을 “지역”, “일대”로 생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 “원”은 “나라 동산”을 의미하므로 “정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The Whole Area of

Gwanghanru”는 명백한 오역이다.

“Gwanghallu-won Garden”에는 공연히 붙임표(하이픈)가 사용되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 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 2항에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 6항에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http://. . /rule06.jsp)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표를 써서 “Gwanghallu-won Garden”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표기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번역은 표음법에 따라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여 “Gwanghalluwon”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Gwanghalluwon Garden”도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광한루”에서 설명하였듯이 삽입을 통하여 목표 텍스트의 독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련 정보가 마치 원천텍스트에 있는 것처럼 문장 내에 자연스럽게 삽입함으로써 목표텍스트의 독자가 삽입임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삽입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최희섭 72).

2.3. 오작교

“오작교”는 「광한루원」, 「광한루」, 「광한루·오작교」, 「오작교」, 「완월정」 등 다섯 곳의 안내판에서 8회 사용되어 있는데 더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오작교” 표기

고유명사	장소	표기 1	표기 2	표기 3	표기4	비고
오작교	광한루원	Ojak Bridge Ojak Bridge				
	광한루		Ojakgyo (bridge)			
	광한루· 오작교			Ojak-gyo Bridge Ojak-gyo Bridge		진한글씨는 제목임
	오작교				Ojakgyo Bridge Ojakgyo Bridge	”
	완월정				Ojakgyo Bridge	

다섯 개의 안내판에서 8회 사용되어 있는 “오작교”는 그 표기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위의 표에 보이듯이 “Ojak Bridge” “Ojakgyo (bridge)” “Ojak-gyo Bridge” “Ojakgyo Bridge” 등 네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오작교”의 경우에는 “광한루”나 “광한루원”에서 일부의 번역에 “pavilion”이나 “garden”을 삽입하여 표현하였던 것과는 달리 모든 안내판에 “다리”라는 의미의 “Bridge”를 붙여서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jak-gyo Bridge”와 “Ojak Bridge”은 잘못된 표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곳에 붙임표를 사용하였고 후자는 “오작 다리”가 됨으로 인하여 한국어에서 통용되는 “오작교”라는 고유명사의 의미가 변질되었다. 이는 일종의 삭제 또는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익히 알다시피 생략이나 삭제는 원문에 표현된 특정 표현을 삭제하거나 생략하여 번역하는 방법이다. 이는 원천 텍스트가 목표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내용이나 표현, 또는 음란하고 외설적인 면이 있어서 목표문화권의 독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유발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생략이나 삭제는 성이나 인종, 또는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 무능력,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문론적 수준과 의미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이근희 2004 122). 그렇지만 생략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번역 방법이 아니다. “오작교”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이를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고, 목표언어권의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리”를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Ojak Bridge”라고 번역하는 것은 다리의 이름이 “오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 좋지 않다.

따라서 “Ojakgyo (bridge)”와 “Ojakgyo Bridge”는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Ojakgyo (bridge)”는 그 의미를 괄호 속에 부연설명하고 있고, “Ojakgyo Bridge”는 목표 텍스트의 독자가 삽입임을 알 수 없도록 한 점이 다르다. “Ojakgyo Bridge”의 경우에 한국인들은 “오작교 교”라는 의미가 되므로 “다리”라는 어휘가 중복되어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리의 이름이 “오작”이 아니라 “오작교”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2.4. 『춘향전』

광한루원은 성춘향과 이몽룡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춘향전』이라는 고전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춘향전』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관광안내판에는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문학작품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 표에서처럼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어느 표기에서도 문학작품임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

<표 4> “『춘향전』” 표기

고유명사	장소	표기 1	표기 2	표기 3	비고
춘향전	광한루원	Chunhyangjeon			
	광한루 · 오작교		“Chunhyang-jeon”		인용부호 사용
	월매집			the Story of Chunhyang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전』이라는 고유명사는 8개의 영어 안내판 중에서 3곳에 등장한다. 그리고 그 3곳의 표기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다. 「광한루원」에는 “Chunhyangjeon”, 「광한루 · 오작교」에는 ““Chunhyang-jeon””, 「월매집」에는 “the Story of Chunhyang”이라고 되어 있다. 「광한루」에 있는 “Chunhyangjeon”은 발음나는 대로 표음법에 따라 표기하였으므로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 서적을 나타낼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탤릭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아서 서적임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광한루 · 오작교」에서는 ““Chunhyang-jeon””라고 따옴표를 사용하여 서적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영어사용권에서 따옴표를 사용하여 서적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것 또한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월매집」에서는 서적의 제목을 의역하여 “춘향의 이야기”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의미는 비교적 제대로 전달하지만, 서적의 제목임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Chunhyangjeon”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2.5. 기타 고유명사

이외에 한 번이나 두 번 쓰인 고유명사의 영어 번역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기타 고유명사 표기(인명제외)

고유명사	장소	표기1	표기2	비고
광통루	광한루	Gwangtongru		
	광한루 · 오작교		"Gwangtonglu"	인용부호 사용
완월정	완월정	Wanwoljeong Pavilion	Wanwoljeong Pavillion	진한글씨는 제목임, 흐린 “i”는 지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임
옥경		Heavenly Kingdom		
광한전		Gwanghan Palace		
승월교	승월교 무지개 분수	Seungwol-gyo Bridge	"Seungwol-gyo"	진한글씨는 제목임. 인용부호 사용
승월대		"Seungwol-dae"		인용부호 사용
춘향사당	춘향사당	Chunhyang Shrine		진한글씨는 제목임
열녀 춘향사			"Shrine of Chunhyang, a faithful wife"	
광한청허부 (廣寒淸虛府)	광한루	Gwanghan-cheongheobu		
월매집	월매(月梅)집	Wolmae's House	생략	
요천	오작교	Yocheon River		
지리산		Mt. Jirisan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광통루”, “월매집”, “완월정” 그리고 “승월교”는 한국어 안내판에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한 번씩만 나온다. 두 번씩 나오는 고유명사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광한루”의 옛 이름이 “광통루”였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광통루”가 두 곳에 나오는데, 이 두 곳의 철자가 서로 다르다. 「광한루」에는 “Gwangtongru”로 표기되어 있고 「광한루·오작교」에는 “Gwangtonglu”라고 번역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http://. . /rule06.jsp)고 되어 있으므로 “Gwangtongru”가 바른 표현이다.

“완월정”은 「완월정」의 안내판에서 두 번 사용되었는데, “Pavilion”의 철자가 틀린 것이 눈에 뜨인다. 제목에는 “정자”라는 의미의 “Pavilion”의 철자를 바르게 썼지만, 설명 중에는 “i”자를 하나 첨가하여 “Pavillion”으로 표기했다. “Wanwoljeong”의 경우에도 제목에는 바르게 되어 있지만, 설명 중에는 “Wanwoljeong”이라고 “i”자가 첨가되어 있다. 이 철자가 잘못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임시방편으로 지운다고 했지만, 지운 흔적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지운 흔적이 남아 있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Wanwoljeong”이라는 한 단어가 “Wanwolj”와 “eong”이라는 두 단어로 분리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철자 하나를 지워서 오류를 고치려고 하는 방법은 너무 안이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승월교”는 「승월교 무지개 분수」의 안내판에 두 번 사용되어 있다. 그런데 제목에 쓰인 것과 설명에 쓰인 것의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다. 제목에서는 “Seungwol-gyo Bridge”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설명 중에는 “Seungwol-gyo”라고 되어 있다. “승월교”를 붙임표를 사용하여 “Seungwol-gyo”라고 쓸 정당한 이유가 없다. “Seungwolgyo”라고 쓰면 된다. 특히 설명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Seungwol-gyo”라고 표기했는데, 여기서도 붙임표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용부호도 필요가 없다. “Bridge”를 삽입한 것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다른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논란거리라고 생각된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삽입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서는 원문 중에 있는 것처럼 삽입하여 자연스럽게 했다.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지만, 지나친 설명이라고 생각된다면 “Bridge”를 괄호 속에 넣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춘향사당”은 「춘향사당」의 제목에 한 번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설명 중에 “열녀 춘향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열녀 춘향의 사당이므로

실제로는 춘향사당이 두 번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안내판에서 “춘향사당”이라는 제목은 “Chunhyang Shrine”, “열녀 춘향사”는 “Shrine of Chunhyang, a faithful wife”라고 되어 있다. 우선 제목이 바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춘향사당”이 “춘향을 기리는 사당, 춘향의 사당”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A Shrine for Chunhyang”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제목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Chunhyang's Shrine”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열녀 춘향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춘향사”가 “춘향사당”이므로 제목과 마찬가지로 “A Shrine for Chunhyang”이나 “Chunhyang's Shrine”으로 번역하고 여기에 “열녀”를 붙여주면 된다. “열녀”는 “a virtuous woman”, “a chaste woman” 또는 “a faithful woman”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춘향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몽룡을 기다린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녀”를 “a faithful wife”라고 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열녀 춘향사”는 “춘향사당”이라는 제목과 통일성을 기하여 제목을 “A Shrine for Chunhyang”이라고 하면 “A Shrine for Chunhyang, a virtuous woman”이라고 번역하면 된다. “춘향사당”이라는 제목을 간결하게 “Chunhyang's Shrine”이라고 하면 “a virtuous woman, Chunhyang's Shrine”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이 된다.

「광한루」에 나오는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는 “Gwanghan-cheongheobu”라고 음차되어 있다. 여기에 붙임표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불필요한 붙임표가 들어 있다. 붙임표를 없애면 바른 표기가 되는데, 붙임표를 넣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표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붙임표가 들어 있는 또 다른 예는 「승월교 무지개 분수」에 나오는 “승월대”에서 볼 수 있다. 승월대는 영어 안내판에서 ““Seungwol-dae””라고 붙임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따옴표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붙임표나 따옴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붙임표가 없으면 바른 표현이 될 것을 붙임표를 사용하여 잘못된 표현으로 만든 대표적인 예이다.

「월매집」에서는 “월매집”이 한국어 안내판에서는 두 번 나오지만 영어 안내판에서는 한 번만 나온다. 영어 안내판에 한 번은 “Wolmae's House”라고 표기되어 있고 한 번은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체하여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용

어의 통일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철자도 표음법에 따라 표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오작교」에 나오는 “요천”과 “지리산”은 그 자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처리하여 각각 “Yocheon River”와 “Mt. Jirisan”으로 번역하였다.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각각 “River”와 “Mt.”가 덧붙여 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삽입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에 「완월정」에 나오는 “광한전”은 “Gwanghan Palace”라고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는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만, 이름을 생략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한다면 “요천”은 “Yo River”, “지리산”은 “Jiri Mountain”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번역은 언어기호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고 언어기호라는 형식(표현 수단)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 세계관,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역동적이고 고유한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형식으로 바꾸어 재생하는 창조적이고 예술적 행위이기 때문이다(김효중 77-78). 원천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현상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상응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지닌 복합적, 다차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산이나 강을 번역할 때 한국어가 지닌 지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소까지 생각한다면 “요천”, “지리산”을 표음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에는 일러두기에서 “‘한라산’, ‘금강’ 등 한글 표기에서 붙여 쓰는 표제어는 하나의 고유 명사로 보아 전체를 로마자로 옮겼다(X)”고 하며, “지리산”을 예로 들어 “Jirisan”으로 표기하고 있다(188). 여기에 목표언어권의 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River”와 “Mt.”을 주석으로 붙이는 것은 정당한 삽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번역은 목적이나 전체적 조건 아래에서 유효한 역동적 행위이므로 그 최적성은 의사소통 관련자, 의사소통 상황, 텍스트 종류, 역사적 시기와 번역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요천”과 “지리산”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요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광한전”을 “Gwanghan Palace”라고 번역한 것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내용을 역어의 문체론에 적합하게 재구성한다는 번역의 핵심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남성우 45). 올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Gwanghanjeon” 또는 “Gwanghanjeon Palace”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옥경”은 “Heavenly Kingdom”이라고 의역하였다. “옥경”은 한국어 안내판에서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고유명사와 달리 이것만 의역함으로 인하여 텍스트의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표음적으로 “Okkyeong”이라고 번역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6. 사람의 이름

지금까지 사람의 이름을 제외한 고유명사의 번역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전자법을 따른 경우와 표음법을 따른 경우가 있어 철자가 통일되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넓지도 않은 장소에 많지도 않은 안내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나 사물을 다르게 표기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유명사 중에서 사람의 이름은 개인마다 달리 표기할 수 있으므로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여기의 안내판에 등장하는 이름은 본인이 철자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철자를 확정할 수 있는데 오류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춘향전』의 두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름 번역에도 오류가 있다. 우선 “이몽룡”의 경우를 보면 영어 안내판에 네 번 등장하는데, 그 표기가 서로 다르다.

<표 6> “이몽룡” 표기

고유명사	장소	표기 1	표기 2	표기 3	비고
이몽룡	광한루 · 오작교	Mongryong			
	월매집		Lee Mongry ong Mongry ong		
	오작교			Lee Mongryeong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한루 · 오작교」에는 “이몽룡”의 성이 생략되었으며, 「월매집」과 「오작교」에는 “몽룡”의 철자가 잘못되어 있다. 더욱이 한국어

안내판에는 “이몽룡”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성이 생략됨으로 인하여 인물이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성, 이름”으로 쓰거나 “이름 성”으로 쓴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 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 4항에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 7항에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표기법에 따라 “성, 이름”으로 쓰거나 “이름 성”으로 써야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몽룡”이라는 이름을 최근에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이름이기 때문이다. 익히 알다시피 『춘향전』은 작가와 창작 연대가 미상이지만, 조선시대 후기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남원을 지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공포한 것이 2000년 7월 19일이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는 “성, 이름”으로 쓰거나 “이름 성”으로 썼을 것이므로 위의 제 7항에 따라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안내판의 제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성을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쓰면서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넣지 않은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그렇지만, 「월매집」의 안내판에서 이름 중의 철자 사이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이름이 된 것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월매집」의 안내판에 있는 “Lee Mongry ong”을 읽어보면 “이 몽그리 옹”이 된다. “Mongry”와 “ong” 사이에 글자를 지운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워진 글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짐작되는 지워진 글자는 “e”일 것이다. 성이 없이 이름만 쓴 것에도 “Mongry ong”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글자를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필자처럼 영어의 표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지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글자가 지워진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고, 지워진 글자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몽그리 옹”이 남원 부사의 아들이고 「월매집」이 춘향과 결혼한 곳⁴⁾이라고 알

4) 한국어 안내판에는 “두사람이 백년가약을 맺은 집”이라고 하여 결혼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이몽룡과 성춘향이 실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한 것은 아니다. 결혼을 약속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나 판소리에서 새로 부임해온 남원부사 변

게 될 것이다. 「오작교」의 안내판에는 "Lee Mongryeong"이라고 되어 있어 발음되는 대로 읽어보면 “이몽령”이 된다. 「월매집」의 안내판에 “Mongry”와 “ong” 사이에 “e”자가 지워진 것이라고 짐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은 남원시에서 발행한 관광안내 소책자에 나오는 “이몽룡”이라는 이름은 “Yi Mongryong”으로 표기되어 있다. 관광안내판에는 “이몽룡”의 성이 “Lee”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관광안내 소책자에는 “YI”라고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추측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일관성의 부족은 관광안내판을 담당하는 부서와 소책자를 발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광한루·오작교」의 안내판과 「월매집」의 안내판에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점을 볼 때 이름의 번역이 서로 다르게 번역된 것이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송자 17).

『춘향전』에서 이몽룡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성춘향”이다. “성춘향”의 이름은 한국어 안내판에서 “성춘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2번이고 “춘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7번이다. 「월매집」에 “성춘향”이라고 한 번 표기되어 있으며, 「오작교」에 “성춘향(成春香)”이라고 한 번 표기되어 있다. 「광한루·오작교」에는 “춘향”이라고 한번 표기되어 있고 「춘향사당」에는 제목과 “춘향사”라는 사당을 포함하여 네 번 쓰였다. 또한 「월매집」에는 한 번은 “성춘향”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춘향”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모두 “Chunhyang”이라고 되어 있을 뿐 “Sung” 또는 “Seong”이라는 표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춘향”의 성을 무조건 생략해버린 것이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은 이몽룡과 애뜻한 사랑을 나눈 사람이 “춘향”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한국어에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엮힌 장소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 “Chunghyang”과 “Lee Mongryeong”이라고 함으로써, “춘향”과 “이몽령”이 사랑을 나눈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또가 성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권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요즈음의 풍습으로 치면 “약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어 안내판에는 “married”라고 하여 결혼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곡은 두 언어 사이에 어휘나 문법적인 요소가 달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의도적인 조작이나 변환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왜곡은 목표 문화권의 독자로 하여금 화자나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특정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그 이외의 내용은 배경적인 지식에 머물도록 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이근희 2004 122). 다시 말하여 왜곡은 원천 텍스트에 없는 맥락효과를 첨부함으로써 원천 텍스트에 없는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저자의 의도와 정확한 정보가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다(최희섭 73).

여기서는 “Chunhyang”과 “Lee Mongryeong”이라고 이름을 잘못 번역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통상 외국인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친숙한 경우에는 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만 말하지만, 친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서 성을 제시하지 않고 이름만 번역한 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견우”와 “직녀”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 “견우”와 “직녀”라는 이름은 한국어 안내판에서는 「광한루원」과 「광한루·오작교」에 나오지만 영어 안내판에서는 「광한루원」에만 나온다. “견우”는 “Gyeon U”, “직녀”는 “Jik Nyeo”로 표기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견우”의 성이 “견”이고 이름이 “우”이며, “직녀”의 성이 “직”이고 이름이 “녀”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견”과 “직”이 성이 아니라 이름의 일부이므로 붙여서 써야 마땅하다. 붙여서 쓸 경우에도 철자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Gyeon U”를 붙여 써서 “Gyeonu”라고 쓰면 [견우]가 아니라 [겨너]가 된다. 현재 표기되어 있는 영어 “Gyeon U”는 발음되는 대로 읽어보면 [견 유]가 된다. 영어 철자 “U”가 첫머리에 위치할 때 [우]로 발음되는 경우는 없다. 물론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 2 장 [표기일람]의 제 1 항 단모음의 표기법에 “ㅓ”를 “u”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http://. . /rule06.jsp>). 이 표기법에 따르면 “Gyeonu”라고 표기하고 [견우]라고 읽도록 외국인에게 강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Gyeonwoo”라고 표기하는 것이 실제의 발음과 가깝고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직녀”도 두 단어로 써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아내도록 되어 있다. 이를 붙

여서 “Jiknyeo”라고 쓰면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http://. . /rule06.jsp)는 규정에 따라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다. 발음을 다소 편하게 하면서 이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서 “Jik-nyeo”라고 쓰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직녀”를 이렇게 표기할 경우에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견우”의 이름도 “Gyeon-woo”로 써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살펴본 안내판에는 이와 같이 붙임표를 사용하여 이름을 쓴 또 다른 경우가 있다. 「광한루」에 “정인지”를 “Jeong In-Ji”로 표기하고 있다. 이름과 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단어로 쓰고 있으며, 이름에 붙임표를 사용하여 한국어에서의 두 글자를 한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 이름에 붙임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단어로 표기해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발음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여 “Inji”라고 표기하여도 발음상 차이가 없다. 여기서 “In-Ji”라고 붙임표를 사용하여 표기하면서 붙임표 다음에 대문자로 이름의 뒷글자를 표기했는데, 대문자를 쓸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 이름도 잘못 번역되었다.

광한루원의 관광 안내판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몽룡”, “성춘향”, “견우”, “직녀” 및 “정인지” 다섯 명의 이름 이외에도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다섯 명의 이름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기타 사람의 이름

장소	한국어이름	영어표기	비고
광한루원	정철	Jeong Cheol	
광한루	황희	Hwang Hui	
	세종	King Sejong(1418-1450)	연도 삽입
	인조	없음	
	고종	King Gojong(1863-1907)	연도 삽입
	황희	없음	
광한루 · 오작교	세종, 세종	없음	
	황희	없음	
	정인지	없음	

위의 표에 보이듯이 앞에서 살펴본 다섯 명의 이름 이외에는 영어로 표기된 이름이 네 개뿐이다. 다른 안내판에는 다섯 명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정인지”가 「광한루」에 쓰인 것은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열거하였다.

한국어 안내판에서는 “세종”과 “황희”가 세 번 쓰이고, “정철”, “인조”, “고종”, “정인지”가 각각 한 번씩 등장하고 있지만, 영어 안내판에는 “Jeong Cheol”, “Hwang Hui”, “Sejong”, “Gojong”이 각각 한 번씩 등장하고 나머지 여섯 번은 생략되어 있다. “세종”과 “고종”은 임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King”이라는 호칭을 덧붙였고, 재임기간을 괄호 속에 주석으로 삽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문장 내에 괄호로 처리하여 삽입하는 방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휘의 뜻풀이나 맥락 등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최희섭 72). 두 임금의 경우 관련정보를 괄호 속에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재임기간을 나타내는 것인지, 생존기간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주석을 삽입하여 오히려 의미를 모호하게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중복된 이름을 포함하여 한국어 안내판에서는 10회 사용된 이름을 영어 안내판에서는 “Jeong Cheol”, “Hwang Hui”, “Sejong”, “Gojong” 등의 이름이 한 번씩만 번역되고 나머지는 생략되었다. 생략이 문장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맥락에 적합한지 여부를 떠나 이처럼 많이 생략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가 왜곡되고 역사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광한루·오작교」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모두 생략되어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름의 철자 문제를 떠나서 번역의 정확성과 충실성 자체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3. 결론

지금까지 고유명사의 번역을 살펴보았다. 사람의 이름 이외의 고유명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동일한 장소나 사물이 곳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어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강조하려는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곳에 따라 인용부호가 사용된 것이다. 일부의 안내판에서 발견된 것이지

만, 일부의 고유명사가 인용부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흐름이 어색하게 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필요없이 붙임표가 사용된 점이다.

사람의 이름의 경우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 “이몽룡”의 경우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성춘향”의 경우에는 성을 표기한 경우가 전혀 없이 이름만 쓰이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여러 번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두 단어로 분리되어 번역됨으로 인하여 성과 이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많은 경우에 생략되었다.

필자가 광한루원 일대의 안내판을 표집한 것은 2007년 여름이다. 이 규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고, 부칙의 2항에서 규정한 시한에서 일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⁵⁾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의 안내판은 이 규정에 따라 표음법으로 표기하였지만, 일부의 안내판은 전자법에 따라 표기되어 있었다. 전자법을 따르거나 표음법을 따르거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박경일 교수는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I)」에서 2002년 8월 22일자에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정부 부처의 고위 관리가 기고한 글이 일어난 논란을 예로 들어 논하면서 번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한 정부 부처의 번역 책임자가 국가의 체신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내용을 조악하게 오역함으로써 원문을 왜곡시켜 원문필자와 그가 대표하는 부서 및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일은 결코 사소한 일과성 사고가 아니다. (이같은 민감한 문구의 번역에 대해서 누구도 사전에 문제

5)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2000년 7월 19일에 공포하면서 기존의 표기법을 고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부칙에는 이 표기법의 시행 시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의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에 그 정도의 감각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적 체신을 유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적재적소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박경일 9)

신문이나 방송에서의 오역문제는 관광지 안내판의 오역문제와 차원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관광지 안내판도 국가의 홍보를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역의 문제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본고에서 살펴본 고유명사의 번역은 번역의 기초에 속하는 것으로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역이 많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관광지 안내판의 제작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부처는 오역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유명사의 번역에 나타난 오역의 문제를 다루느라고 지면관계상 다루지 못한 문장의 오역 내지는 오류는 다음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효중. 2004. 「해석학적 번역이론과 텍스트기능」, 『번역학연구』. 5.1: 77-96.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노송자. 2008. 『관광지 영문 안내판의 번역 오류 분석: 남원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000.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
- 박경일. 2003.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I)」, 『번역학연구』. 4.1: 5-26.
- 이근희. 2005. 『번역산책』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04. 「번역의 변환 현상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5.1: 113-144.

전라북도. 2000. 『문화재안내판 문안집』(국가지정편). 전주: 도서출판 학예사.

전라북도. 2000. 『문화재안내판 문안집』(도지정편). 전주: 도서출판 학예사.

최희섭. 2007. 『번역 첫걸음 내딛기』. 서울: 도서출판 동인.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06_new/rule/rule06.jsp

[Abstract]

Spelling Mistakes of Proper Nouns in English Information Boards of Gwanghalluwon Area

Choi, Hie Sup
(Jeonju University)

In the summer of 2007, I happened to find some mistakes in the English information boards in Gwanghalluwon Area. I checked eight information boards. As there are so many mistakes, I decided to write papers on them. As this is the first one of them, I focused on the proper nouns in the information boards.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proclaimed “The Rule of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on the 19th of July, 2000. According to the additional rules, they should have changed the information boards by the end of the year 2005. I don't know whether the information boards were changed or not, but there is no consistency in the spelling of the proper nouns.

The place names are not spelled according to any specific rules, for example, the rule of seal characters or the rule of phonetic representation. As “The Rule of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dvices to use the rule of phonetic representation, the proper nouns should be translated and spelled according to the rule.

The mistakes are so diverse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classify them into some categories. Some proper nouns have spelling mistakes and unnecessary quotation marks. Some have unnecessary additional spellings or a hyphen, and some show an omission of a necessary spelling, etc.

The mistakes in the spelling of proper nouns show the attitude and ability

of the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the information boards. The translators who translated the information from Korean into English seem not to have any sense of historical calling and not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boards are mute diplomats introducing Korean culture to foreigners.

▶ Key Words: Gwanghalluwon, The Rule of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he rule of seal characters, the rule of phonetic representation, information board

최희섭

전주대학교 영문과 교수

choihiesup@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 영시, 동서비교문학

논문투고일: 2008년 1월 21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3월 8일